ISSUE PAPER TALK

CLIMATE RISK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위험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노동전문지 기자인 나는 산업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기후나 환경에 대한 지식도 그리 훌륭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앞으로 가장 큰 노동 안전보건 이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기후위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산불과 물난리, 폭염과 생태계 변화 등을 통해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는 곧 생명과 건강의 위기로 직결된다. 불타는 더위 속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건설 노동자,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업 종사자, 배를 짓는 조선 노동자, 수마 속에서도 배송 차량을 멈출 수 없는 물류 노동자들에게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다. 생존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초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명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한 39조는 기존 '고온·저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고열·한랭'으로 변경하고,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안전보건 환경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폭염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다. 열스트레스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치명적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와 산업안전보건(저자 : 박종식, 박수민, 권오성, 류현철)> 보고서는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보건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선언한다. 세계노동기구(ILO)도 지난해 '변화하는 기후 속 일터 안전보건 확보'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폭염 외에 자외선, 기상이변, 대기오염, 매개체 전염병, 농약 등 여섯 가지를 꼽았다. ILO는 폭염 때문에 매년 2천285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1만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폭염의 상상력과 새로운 위험

폭염은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에 대비해야 한다. 대기 속에 오존 농도가 짙어지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자외선의 증가로 이어져 피부암, 백내장, 광각막염, 일광화상, 면역 억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모자와 선글라스 같은 자외선 차단 보호장구 지급이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기후변화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ILO가 제시한 여섯 가지 위험요인에 △녹색산업에서의 직업적 위험 △건축 △정신건강 △직장 내 폭력을 더해 아홉 가지로 기후변화의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예컨대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지(高地) 작업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될 수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노동자 간 갈등과 폭력 위험 증가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다.

기후위기는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그래서 전에 없던 갈등 양상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노동자는 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냉방장치의 설치와 강화를 요구하는데, 사용자는 탄소배출 저감을 이유로 전기절약을 강조하며 대립할 수 있다. 냉방장치 설치와 탄소배출 저감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원인은 같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의 미덕은 기후위기 유해·위험요인의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대책을 함께 고려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적응은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완화는 기후위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주로 '적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열질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온열질환의 원인인 기후위기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옥외작업이 많은 조선소에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휴게시간을 연장하고 무더위 철에 휴가를 길게 가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완화 전략으로는 무탄소 선박 개발 등 사업장 에너지 효율화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근무일 축소, 친환경 작업장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험하지 못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적응과 완화를 연결하는 열쇠는 사회적 대화다. 노사정이 함께 적응대책과 완화대책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고서는 '기후위기 기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근로시간, 휴게권, 작업중지권 등 실질적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작업환경 구축 의무화, 사업장별 기후위기 영향평가 도입, 적응-완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겨야 한다.

기후위기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노동 안전보건 체계를 더 통합적이고 진보적으로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기후위기의 담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